

보성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도전

별교갯벌·득량만·보성강·주암호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

세계적 준비 통해 7월31일까지 최종 신청서 제출 계획

보성군은 ‘별교갯벌’, ‘득량만 해역’, ‘보성강 및 주암호’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해 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6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지역 중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곳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 3대 자연보전제도 중 하나로, ‘보존’과 ‘발전’, ‘지원’을 조화롭게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보성군은 이를 위해 군 전역을 ‘별교갯벌’, ‘득량만 해역’, ‘보성강 및



보성만 갯벌 전경.

주암호’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보성군은 등재를 위해 철저히 하고 단

계적인 절차를 밟아왔다. 2024년 4월,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회의에서 예비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다양한 생태·문화 유산 기반 위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광양청년꿈터 ‘화과자 만들기’ 30일까지 접수…내달 7일 운영

광양시는 어버이날을 맞아 오는 5월 7일 오후 6시 30분, 광양청년꿈터에서 ‘사랑을 담은 케이크인 화과자 만들기 웨비나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년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그 가족이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https://gwangyang.go.kr/youth/>)를 통해 진행되며, 광양청년꿈터는 선착순으로 15개 팀을 선정해 화과자의 기초 개념을 배우고 직접 화과자를 만드는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동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가족들이 함께 화과자를 만들며 평소 나누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용갑 구례장학회 이사
‘구례 군민의 상’ 수상



구례군은 지난 4월 19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장용갑 구례장학회 이사(76세)에게 2025년 구례군 군민의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교육·문화·체육 부문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장용갑 이사는, 모교를 비롯한 구례군 소재 학교들에 장학금 기부를 지속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2020년 수해 발생 당시 수재민을 위한 수재의연금 지원, 아너스 사이어티 가입, 구례학사 확장 이전 추진 등 고향을 위한 다양한 기여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다.

김순호 군수는 “장용갑 이사는 평소 구례에 대한 남다른 고향 사랑과 후배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군민과 함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곡성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통문화·기후 인식 확산

덕양서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성황리 진행

곡성군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곡성문화원 주관으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 유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덕양서원에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향교·서원 워킹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기후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

는 기회를 제공했다.

유학생들은 직접 전통 유생복을 입고 선비가 되어 과거 시험과 전통 놀이를 체험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수님과 함께 기후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고, ‘기후변화 미션’을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기후변화와 문화유산 보호의 연결을 배우는 것이 매우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향교·서원 워킹맨’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10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어린이들과 관광객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곡성=홍영백 기자

광양 ‘네 자녀 이상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후원금 기탁식

지역 내 30개 기업, 14개 단체·개인 참여…총 8160만 원 후원금 기탁

광양시는 중마동 자치센터 4층 다목적 강당에서 18개 후원기업과 가정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네 자녀 이상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후원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공동육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됐으며,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광양시 아동보육과는 광양상공회의소의 협조를 바탕으로 총 44개 기업·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네 자녀 이상 68가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8,160만 원의 후원금을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지정 기탁했다.

결연 기간은 1년이며, 기탁된 후원금은 재단을 통해 결연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양육지원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연 사업에 함께 해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인 만큼, 다른 기업들과 함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5년째 연속 이어진 기업·단체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며 “사업이 더욱 확산되고 지속적

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저출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기업들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양육 부담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준익 기자

순천 선암사 겹벚꽃 스냅투어, 여행객 감성 자극

고즈넉한 고찰과 화사한 봄꽃 조화로 ‘순천의 봄’ 만끽

순천시는 이틀간 선암사 겹벚꽃을 주제로 한 봄맞이 스냅 사진 여행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여행 프로그램은 여행 가이드이자 스토리텔러인 사진작가 동행해 고찰 선암사의 고즈넉한 정취와 참여자들의 순간을 스냅 사진으로 담아내는 특별한 여행상품이다.

판매 시작 일주일 만에 전 회차가 매진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으며, 다동이 가족, 부모님과 함께한 자녀, 연인, 자매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이 참여해 순천의 봄을 만끽했다.



참여자들은 지난 17일~18일 선암사의 대표 겹벚꽃 명소는 물론, 야생차체험관과 고찰 구석구석을 배경으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순천의 봄을 사진으로 남겼다.

특히, 전통야생차체험관에서는 지

역 교유의 야생차를 맛보고, 고택을 배경으로 한 스냅사진 촬영이 이뤄져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여자는 “사진으로만 보던 선암사의 겹벚꽃을 배경으로 부모님과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고, 순천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겹벚꽃 스냅 사진 여행을 시작으로 여름 갯벌체험, 가을 트래킹, 겨울 탐조 등 계절별로 특색있는 생태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순천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2026년 전남도체육대회 구례에서 만나요”

제65회 전남체전 대회기 인수

구례군은 지난 21일 장성군 홍길동체육관에서 열린 제64회 전남체전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로 대회기를 인수하고 2026년 제65회 전남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김순호 군수는 이날 김한중 장성군수로부터 전남체전 대회기를 전달받아 구례군이 차기 대회 개최지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또한, 구례군청 공무원들과 구례군 체육회가 홍보단을 구성해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 영상을 상영하는 등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순호 군수는 “제64회 전남체전이 장성군 관계자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덕분에 도민 모두가 스포츠로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



을 함께할 수 있었다”라며 “제65회 전남체전은 구례의 청정 자연과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군은 전남체전 조직위원회 구성, 경기장 시설 확충 및 정비, 숙박 및 교통 대책 마련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구례=오광범 기자

순천 세계유산축전 ‘세계유산마을 워크숍’

주민과 함께 세계유산축전 마을 특화 프로그램 개발

2025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을 추진 중인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는 오는 5월 15일까지 ‘세계유산마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마을 워크숍’은 세계유산마을 주민, 어촌계장, 이장, 마을단체 및 청년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세계유산축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체계적으로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청년기획자와 마을 협업 모델 구연을 위해 마련됐다.

총 5회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마을 소재 자원 활용 사례 발표

▲주민주도 프로그램 성공사례 및 강의 ▲청년기획자·지역 주민 매칭과 협업 ▲세계유산의 가치를 담은 마을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해 지역청년기획자들이 퍼실리테이터로 활약하고 마을과 협력할 예정이다.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세계유산축전을 만들고자 워크숍을 기획했다”며 “2025 순천 세계유산축전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선암사와 순천갯벌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순천=조준익 기자

보성, 행안부 ‘청년마을 공모’ 최종 선정

전남 유일 선정… 향후 3년간 국비 6억 원 지원

보성군은 지난 21일,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했으며,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대면 심사를 거쳐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보성군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인구 감소 대응을 목표로 한다. 보성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모에 선정된 ‘그린티모시레(대표 용수진)’는 보성군이 좋아 자발적으로 모인 외부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회천면 영천마을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들과 긴

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에 화답해 주거 공간과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차(茶) 원료 제공과 재배 기술 전수에도 적극 나섰다.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참신한 기획력과 주민들과의 견고한 협력 구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린티모시레’는 올해 5월부터 향후 3년간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들은 지역 특산물인 녹차를 주제로 영천마을에서 △단기살이·장기살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명품차(茶) 구독 서비스 출시, △청년 주도형 청년 마을 축제 개최, △창업 실험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지역탐색과 일거리 실현에 참여하고,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 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4분의 기적’ 교육

11월까지 매월 1회 운영…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광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나눔터 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시자원봉사센터는 응급처치능력 강화를 통한 시민 생명 보호를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4분의 기적’ 교육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11월까지 매월 1회씩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 시 대피요령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심정지 환자 반응 확인 ▲마세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하임리히법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119가정봉사단 이원희 회장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는 자원봉사 4시간이 인정된다. 또한, 교육 수료자에게는 자원봉사 축제장에서 열리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할 기회도 주어진다.

교육 일정은 1365자원봉사포털 및 네이버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광양=조준익 기자